



2007 금융기관장 인터뷰 ⑤

영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상용

‘규모는 작아도 든든한 재무구조’ 목표로 노력

전통체험장 담그기 사업 年 3~4회 추진계획



영북농협은 조합원 1천450명, 준조합원 5천35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말 영북농협 재산상태는 자산이 774억7천300만원, 부채가 735억700만원이며 순 자산은 39억 6천600만원이다.

지도사업부서는 운영공개 4회 등 조합원 실익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 조합원의 농업인안전교육, 전 조합원 비료, 농약, 농자재 지원 및 조합원 자녀 학자금지원 등 환원사업으로 1억6천800만원을 지출했다.

경제사업은 판매 41억8천300만원, 구매 36억2천900만원, 마트 19억8천900만원, 창고,운송,이용 4천700만원으로 5억7천4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공제사업은 유효계약 803억 원, 공제료 34억9천만원으로 39억 1천8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지도관리부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28억7천400만원, 지도사업 준비비 3억6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영업외수익 부문에서는 8천900만원을 조성에 법인세 등 3천500만원을 납부, 2억3천만원의 순이익을 조성했다.

‘규모는 작아도 든든한 재무구조’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영북농협은 조합원, 고객과 함께 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쌀 고품질 계약재배, 인근 농협과 연계되는 오이, 토마토, 고추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소·대회산리에 전통장 체험장 준공, 더덕, 고사리 재배, 햇개나물 식목으로 산촌 관광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농협 수직사업 창출을 위해 대출과 예금, 공제, 카드, 쌀 판매 등 직원들에게 목표를 부여해 달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복지사업으로 조합원 부인으로 구성된 각종 품목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향주부, 농가 주부모임에서 전통주부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고 이 두부를 농협마트 앞에서 판매해 판매 증과 학교 학생 5명씩 선정해 급식

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매주 17명의 독거노인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선정해 말안장을 만들어주고, 청소와 빨래, 발 마사지 등을 실시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 주부대상 주말농장 운영, 판매 거주하는 군인가족 무료 주말농장 개장, 65세이상 원로모임구성, 환경정화, 게이트볼 운영, 무료치과검진(경희대학교 연계), 조합원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전통체험장 담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체험장 담그기 사업은 지난 3월20일 체험장 준공식을 갖고 고추장, 된장, 간장을 1년에 3~4회 담그기 판매할 계획이다. 이상용 조합장은 “영북농협은 작지만 든든한 재무구조를 갖춘 농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제사업은 판매 41억8천300만원, 구매 36억2천900만원, 마트 19억8천900만원, 창고,운송,이용 4천700만원으로 5억7천4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아직 농협이 여러번 곁에 있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한번에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하나 하나씩 조합원 여러분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는 것은 우리 농협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며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농협에서는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시설하우스, 관수 시설의 설치 및 소·대회산리의 산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전통장 담그기 체험장, 더덕심기, 숲가꾸기 사업 등을 조성하는데 지원하겠으며, 벼 자체 수매물량도 점차 늘려 수도작 농가의 집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영북농협의 5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비전과 운영전략을 제시하여 나아갈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겠습니다.”

영북농협협동조합 이상용(사진) 조합장이 2007년 영북농협 경영방침을 밝혔다.

재테크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전 재무설계

최근 재무상담을 한 40대 초반의 A씨 부부. 마침 지난 주 신문에 자영업자의 노후준비란 칼럼을 쓰고 난 후라 그 글을 보여 주었더니 많은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였다. A씨때 역시 사업으로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 가정생활로 쓰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2. 가정 생활비 장사를 하시는 분은 늘 현금이 있기 때문에 씀씀이가 해피다. A씨때도 계획 없이 쓰는 돈이 예상 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새는 돈을 막고 꼭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가정생활비를 책정했다. 식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자녀 교육비(학원비 포함), 자동차 관련비용, 문화생활비(경조사비 포함), 부모님 용돈 등이 월 생활비다. 이액의 생활비는 200만원 정도였다.

3. 보험과 저축 보험은 가정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당장 들어가는 보험료를 아깝다 생각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고 서야 후회를 하는 경우가 아직 많았다. 이 때도 체계적인 보살 계획 없이 값싼 보험만 몇 개 가입되어 있어 만일에 사재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월 소득의 10%인 40만원 한도 내에서 부부와(중신, 건강보험) 두 자녀(건강)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1. 월 평균 소득 파악하기 월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몰았을 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답은 ‘그때 그때 달라요’. 물론 사업에 따라 계절적인 변동이 있게 마련이어서 쉽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럴 땐 작년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감인연간 월평균 소득 수준을 찾아내면 된다. 어렵잖아 순수입이 월 400만원 쯤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with 2 columns: 월평균 소득, 지출. Rows include 생활비, 보장성 보험, 연변보험, 어린이보험, 펀드, 정기적금, 합계.

여기에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두 부부 중 한 사람이 남편이라도 종신까지 연금이 나오는 연변보험으로 50만 원을 가입하였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필요한 노후 준비자금에는 부족하지만 여유 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납입을 통해 금액을 키워 갔다.

이후 중학교 1학년, 초등 4학년 인 자녀의 학자금으로 월 30만원씩 어린이 연변보험에 가입하여 중등도입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으로 활용하고 자녀가 26세 되었을 때 비과세 통장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단기 자금으로는 60만원 정도를 국내의 우량주 중심의 3개 펀드에 각각 20만원씩 가입하여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돈은 3년 후 찾아서 주택확장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 30만원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신탁에 정기적으로 가입하여 필요할 때 활용하기로 하였다.

상담이 끝나자 체계적인 돈의 사용방법을 알게 되어서 좋다며 만족해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이 준비되어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었고, 노후자금과 아이들 학자금도 점차 키워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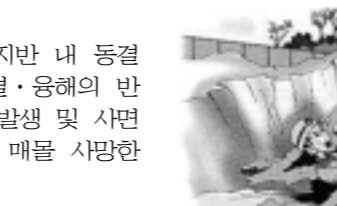
포천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홍씨는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자신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 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박유홍씨는 자신이 실제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지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바, 담당관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갔으나 이종으로 부당해야 하는 부가세에 너무나 억울해 하였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부가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1) 신청자의 소유자인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신청자가 임차자인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권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산업안전사고 예방

절토사면이 붕괴되면서 매몰사망

▶재해발생개요 절·성토사면 지난 내 돌출된 공극수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 부식 발생 및 사면 붕괴로 피재자가 매몰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위험요인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사면내부로 침투하여 사면 토사중량·유동성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사면 슬라이딩에 의한 위험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대책 • 작업전 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식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보강공의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조치 •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또는 용수부위 존재 • 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등을 적치금지



• 절·성토사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면마복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 정비 • 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 유출 등 사면계측 실시 • 사면안정을 위하여 역제공법과 역지공법 등 근본적인 조치 실시 • 동절기에 작업을 중단하였던 터널공사의 경우 낙석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파의 탈락 여부 점검 • 절토시는 토질의 형상, 지층분포, 불연속면(절리단층)방향 등을 사전검토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⑫ 엑센스 송우점

문구·악세사리 패션 1번가



대표 국승준

문구·완구·팬시에서 사무용품까지 교육·문화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며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는 엑센스 송우점(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0 대표: 국승준). 고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패션 1번가 엑센스는 프린트 용지, 복사용지, 일반사무용품, 필기류, 화일 바인더, 생활용품, 잡화, 악세사리에 이르기까지 유아부터 어른들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엑센스 송우점은 지난 1999년 개점 이래 줄 곳

남대문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물건을 구입해오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실속 있고 유행에 앞서가는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선정해 오기 때문에 고객들은 쇼핑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지속적인 매출과 더불어 고객확보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엑센스 송우점은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밸렌로 데이 등의 특별한 행사기간 중에는 그동안 잊고 찾아주는 고객들을 위해 제품 가격을 10% 할인해 주고 있어 고객들이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회원보호와 엑센스 송우점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위해 회원제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엑센스 송우점 또한 회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엑센스 송우점 국 대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엔 제품의 구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물용품이나 악세사리 등은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 수시로 남대문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제품은 바로바로 구입해 매장에 전시해 놓아야 마음이 편하고, 인터넷의 활성화로 고객들이 먼저 제품을 알고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구입에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회원제 도입으로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철저한 A/S” 돋보여

고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믿을 수 있는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사명감에 8년 동안 고객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엑센스는 현재 국내에 약 50여 개의 체인점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 유행에 앞서가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국 대표와 엑센스의 처음 인연이 된 것은 친누나가 문구점을 운영하면서부터다. 문구점에 천의원이었던 국 대표는 누나 때문에 문구업을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운영하게 되었지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엑센스 송우점은 앞서가는 제품을 취급한다는 컨셉으로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은 물론 고객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도록 운영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다시 찾는 엑센스 송우점”을 고객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 엑센스 송우점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 교환이 가능한 경우 즉석에서 바로 교환해주고 있으며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면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완벽한 A/S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엑센스 송우점은 본사로부터 문구·팬시 용품은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일반 생활용품, 악세사리 등은 국 대표가 직접 서울

본사의 031)543-9405 HP 011)785-5983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고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패션 1번가 엑센스는 프린트 용지, 복사용지, 일반사무용품, 필기류, 화일 바인더, 생활용품, 잡화, 악세사리에 이르기까지 유아부터 어른들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Q&A

병급조정서 제외... 재혼하면 연금이 중단되나 곧 개정 예정

재혼 횟수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어 현행법상 분할연금을 받는 여자가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 지급은 재혼 기간동안 정지된다. 재혼했을 경우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국민연금을 정지시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분할연금을 받는 여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여자가 남자 B와 30~40세, C와 40~50세, D와 50~60세까지 살았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모두 이혼하거나 사별한 상

국민연금 Q&A

두 번 이혼한 여자의 경우 분할연금도 두 개 받나?

분할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병급 조정을 하지 않고 합산하여 지급한다. 병급 조정의 또 다른 예외는 분할연금과 노령연금간 발생한다. 본인의 가입이력에 의한 노령연금과 이혼한 전 배우자의 가입이력에 의한 분할연금 두 가지가 발생할 경우 둘 중 선택한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A가 80세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자(E)와 재혼 후 사별한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개정할 예정이지만, 현행 규정상 A는 E의 사망 전까지 분할연금이 정지된다. 그리고 E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과 본인의 분할연금 중 선택한 급여만을 지급 받는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소 031-544-8700